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5년 11월 11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 11일(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이경호 과장(044-203-4030), 송영진 사무관(4031)

범부처 수출대응체계 가동

-11.11일,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개최 -
"차세대 수출품목 발굴 및 신규 유망품목 수출확대에 정부 역량 결집"
"무역보험료 50% 할인,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단기 수출대책 추진"

□ 정부는 11.11(수)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내년도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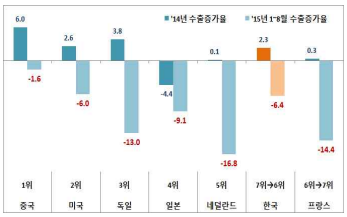
* 일시·장소 : 11.11일(수) 07:30~09:0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 : 산업부, 기재부, 미래부, 문체부, 복지부,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 중기청, 지원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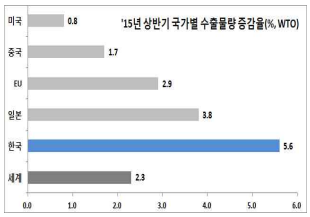
□ 윤상직 장관은 세계 교역량의 감소, 저유가 등으로 **금년들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저유가 지속,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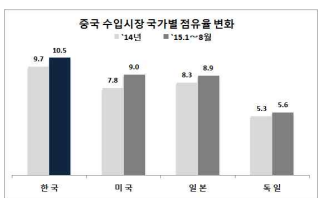
○ 어려운 여건 속에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국회에 계류중인 3개 FTA**의 연내 조기 비준, 발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 여야정협의체가 하루빨리 열려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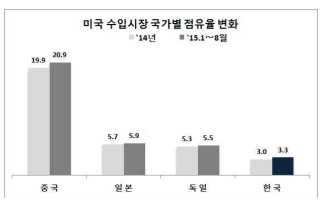
○ 또한, 윤장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부진한 건 사실이나, **세계 수출 순위 상승(7위→6위), 중국 시장점유율 10% 돌파, 미국 시장점유율 상승(3%→3.3%), 물량기준 수출증가세 지속('15 상반기 5.6% 증가)** 등 우리수출이 **경쟁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출회복에 힘을 모아 **내수·수출 쌍끌이 성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

□ 이번 수출진흥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수출지원기관들은 최근 **OLED, SSD, 화장품, 신약** 등 **신규 수출유망품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차세대 주력품목의 추가 발굴과 수출확대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OLED와 차세대반도체** 부문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확대를 위한 **'초격차 기술전략'**의 일환으로 업계가 계획중인 **대규모 선제 투자**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고,

* OLED 투자 관련, 장비 할당관세(관세율 5~8% → 0%) 지원, R&D 세액공제(20%) 일몰 연장('15→'18년) 등

○ **화장품, 신약** 등 최근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품목과 한중 FTA 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소비재, 농수산식품** 등을 차세대 수출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신약·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와 더불어 **해외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15년 1.3조원→'16년 1.5조원)하는 한편,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처별 주요 단기수출대책】

□ 이와 함께 당면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각 부처 차원의 **단기 대책도 점검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할인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확대(연간 175억원 수혜)하고,

- 12월초에 해외바이어 5백개사와 국내기업 2천개사가 참가하는 **초대형 수출상담회**도 개최(12.8일, 킨텍스)하는 한편,

- 11~12월중 K-Global@실리콘밸리(11.12-13), K-Global@상해(12.5-16) 등을 통해 S/W, ICT기업들의 해외진출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쌀·삼계탕**의 對중국 수출을 위해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對중국 수출추진단**을 11.4일부터 구성·운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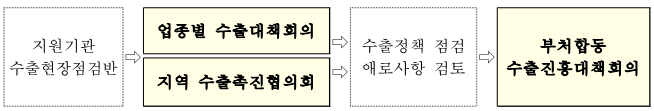
- 11~12월중 중국, 미국, 아세안 등에서 **사과·단감·유제품** 대형유통업체 판촉활동, **김·어묵** 수출마케팅 등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역직구 활성화**를 위하여 11월중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전자통관시스템 內)을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범부처 수출대응체계】

□ 정부는 수출 회복시까지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업종별 수출대책회의」, 「지역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지원기관 중심의 **현장점검반**도 운영하여, 정책조율, 이행상황 점검, 업계 애로사항 처리 등 범부처 차원의 수출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범부처 수출대응체계>



<첨부> 1. 회의개요
2. 세계 수출순위
3.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별 점유율
4. 주요 국가별 수출물량 증감율
5. 신규 유망품목 관련 통계현황
6. 소비재산업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수립계획
7. 수출부진타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8. 부처별 수출 활성화 추진계획(별도첨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이경호 과장(☎044-203-4030), 송영진 사무관(☎4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회의개요

관계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

□ **일 시** : '15. 11. 11일(수) 07:30~09:00

□ **장 소**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 **참석대상**

○ (위원장) 산업부 장관

○ (위 원) 기재부 1차관, 미래부 2차관, 문체부 1차관, 농식품부 차관, 복지부 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부 1차관, 해수부 차관, 중기청장, 관세청장

○ (지원기관) KOTRA 사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무역협회 부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수출입은행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콘텐츠진흥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 **주요내용**

○ 수출현황 점검 및 부처별 수출 활성화 추진계획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07:30~07:35	(5′)	■ 모두 말씀	위원장
07:35~08:25	(50′)	■ 각 부처 발언 - 부처별 수출활성화 추진계획	위 원
08:25~08:55	(30′)	■ 토 의	참석자
08:55~09:00	(5′)	■ 맺음 말씀	위원장

첨부2 세계 수출순위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순위	2014년			2015.1-8월 누계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세계	190,020	0.3	**세계**	100,760	△11.1
1	중국	23,423	6.0	중국	14,586	△1.6
2	미국	16,205	2.6	미국	10,087	△6.0
3	독일	15,076	3.8	독일	8,807	△13.0
4	일본	6,838	△4.4	일본	4,163	△9.1
5	네덜란드	6,721	0.1	네덜란드	3,760	△16.8
6	프랑스	5,826	0.3	**한국**	**3,534**	**△6.4**
7	**한국**	**5,727**	**2.3**	프랑스	3,334	△14.4
8	이태리	5,287	2.0	홍콩	3,279	△2.2
9	홍콩	5,241	△2.1	영국	3,036	△9.3
10	영국	5,058	△6.5	이태리	3,024	△14.6

자료: WTO

첨부3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별 점유율

(단위 : %)

	중국 수입시장			미국 수입시장		
	'14년	'15.1~8	증감(%p)	'14년	'15.1~8	증감(%p)
중 국	-	-	-	19.9	20.9	1.0
미 국	7.8	9.0	1.2	-	-	-
독 일	5.3	5.6	0.3	5.3	5.5	0.2
일 본	8.3	8.9	0.6	5.7	5.9	0.2
한 국	**9.7**	**10.5**	**0.8**	**3.0**	**3.3**	**0.3**

자료: 한국무역협회

첨부4 주요 국가별 수출물량 증감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미국	중국	EU	일본	한국	세계
2014년	3.3	6.8	1.8	0.5	**4.6**	2.5
2015년 상반기	0.8	1.7	2.9	3.8	**5.6**	2.3

자료: WTO

첨부5 신규 유망품목 관련 통계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9월
화장품	금액	315	373	699	687	818	1,038	1,593	1,730
	증감률	20.3	18.5	87.3	△1.7	19.2	26.9	53.5	63.4
의약품	금액	986	1,136	1,168	1,268	1,446	1,501	1,729	1,651
	증감률	25.7	15.2	2.8	8.5	14	3.8	15.2	31.4
OLED	금액	12	89	684	2,174	4,373	5,165	4,119	3,918
	증감률	35.3	637.4	671.8	217.9	101.2	18.1	△20.2	26.5
시스템 반도체	금액	13,127	12,292	16,093	19,959	24,544	24,973	22,518	17,374
	증감률	△7.4	△6.4	30.9	24.0	23.0	1.7	△9.8	9.9

자료: 한국무역협회

품목명	점유율 (순위)	품목명	점유율 (순위)
화장품	**4.3% (6위)** 1위 : 프랑스 (20.8%) 2위 : 미국 (11.5%) 3위 : 독일 (8.4%)	OLED	**48.4% (1위)** 2위 : 중국 (9.7%) 3위 : 네덜란드 (6.8%)
의약품	**0.6% (18위)** 1위 : 스위스 (18.6%) 2위 : 독일 (15.6%) 3위 : 벨기에 (12.3%)	시스템 반도체	**6.0% (6위)** 1위 : 싱가폴 (18.5%) 2위 : 홍콩 (16.0%) 3위 : 중국 (11.6%)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화장품**(HS 3304), **의약품** (MTI 226200), **OLED**(HS 8531909000), **시스템반도체** (MTI831120, 831130, 831190)

첨부6 소비재산업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수립계획

1. 소비재산업 명품화 육성 T/F 운영

○ **(개요) 소비재 분야 명품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부내 **산업, 무역, 디자인, 생활산업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 구성 및 운영**

○ **(기간) '15.11.2~'15.12.31 (2개월)**

2. 정책 검토방향

○ **소비재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태계 조성**

- 우리 소비재 품목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 **異업종간 교류**(소비재 + 뿌리기술, 소비재 + 소재산업 등)*, **아이디어의 사업화**, **동일 품목간 협력** 등 **소비재 산업 전반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지원**

* 예) 우리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재기업과 금형・사출・소재・정밀기계・가공・다른 소비재 분야 등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 검토

○ **기업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추진**

- **기업 역량 및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R&D, 마케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추진**

* 창업기업・소기업 :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 지원 등
* 중소・중견기업 :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명품화 지원 등

- **전자상거래, 브랜드, 한류 활용** 등 **다양한 마케팅수단 활용도 병행**

3. 향후 계획

○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도출**

○ **문화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 **범부처적 지원체계 마련 추진**(예 : 한류 활용 → 문화부 연계, 농식품 분야 → 농식품부 연계 등)

첨부7 수출부진타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 추진 배경

○ 2015 추진사업의 후속 성과관리를 통한 조기계약을 유도하고 급격한 수출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 타개 돌파구 마련

○ 공사 추진사업의 **전사적 F/U를 통한 수출계약 조기 체결을 지원,** 전사적 역량결집을 통한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

□ 사업 내용

○ 일시/장소 : 12. 08(화) / KINTEX 제 2 전시관 7홀
* 12.9(수)/ 지방상담회(광주, 대구, 부산) 및 국내기업 생산현장

○ 참가 규모 : **온·오프라인 바이어 500개사, 국내 2,000개사**
* **성약 유망 바이어**, **수요급등품목 바이어** 우선 선정

○ 주요 프로그램 : 1:1 수출상담회, 사이버 상담회, 설명회, 개별방문
* 방한 바이어의 국내 생산현장 실사 지원을 통한 조기계약 유도

○ 주요 분야

- 해외 바이어가 선정한 **수요급등 100대 품목 수출촉진**(산업관)
  * LED, 조명, 의료기기, CCTV, 식품 및 틈새수요 상품 집중
- 중동, 중남미, 중국, 미국 등 **정상 순방지역 주요의제 성과창출**(경제외교활용관)
  * ICT, 정보보안, 전자상거래, 소비재, 할랄식품, 기자재, 프로젝트 등 국가별 의제 총망라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지사화 등 **정형화 사업 유망성과 수확** 지원(중소중견기업관)

[상담관 및 설명관 세부구성(안)]

연번	구성	운영테마	방한초청대상	유치목표(안)	
				바이어	국내
1	산업관	**수요급등 100대 품목 상담회**	급등 품목 취급 바이어	50	250
		해외 유통망 후속 상담회	소비재 전반	50	250
		소재부품 GP 성과창출 상담회	자동차, 중장비	50	150
		신성장 유망품목 수출상담회	문화컨텐츠, 의료	50	150
		IT 유망품목 수출상담회	모바일, IT 분야	50	150
2	중소중견기업관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상담회**	수출첫걸음대전 유력 바이어	100	100
		지사화 유망 상담회	지사화 유망 바이어	50	50
3	경제외교 활용관	**경제외교 활용 상담회**	순방지역 아젠다 관련 바이어	100	200
4	수출부진타개 설명관	**경제외교 활용 비즈니스 기회**	-	-	100
		10대 수출 기회국가	-	-	100
	합계			**500**	**1,500**